저희 EDA조는 골목상권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중 골목상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분석하여 그 효용성을 평가하고, 더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저는 전통시장 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금 데이터를 분석하여 관련 투입 예산은 증가하는 반면 직접적인 지원금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을 깨달았고,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간접적인 혜택부여, 설비 개선등의 지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쟁력지표(기본시설, 편의시설, 홍보시설등의 보유 여부 등등)에 대한 외부 데이터를 지역별로 분석해 보았는데,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대형마트와 비교하여 설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선 대형마트와 비교하여 단점인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고, 전통시장 만의 고유한 강점을 극대화 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형마트와 차별화 될 수 있는 전통시장만의 요소들을 분석하여 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프로젝트의 의미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주제인 골목상권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대형 마트들와 전통시장의 주변 상권과 밀집도를 분석하여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공존할 수 있는 최적의 상권을 규명해보는것도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